



시민중심! 행복삼척

# 보도자료

제 공 일 2017. 10. 11.(수)

제공기관 삼척시청  
문화공보실



## ▷ 주요내용

- ◆ 삼척시, 추석연휴기간 12만 5천명 삼척해상케이블카 등 관람 관광객 급증 = 삼척해상케이블카 대박! 명품 관광지 급부상, 지역 상경기 호황 전인 =
- ◆ 깊어가는 가을, 죽서루에서 작가와 함께 「3人3色이야기」 참가자 모집
- ◆ 삼척시, 악극 「꿈에 본 내고향」 초청공연 개최  
- 제23회 삼척시민의 날 기념 무료 초청 공연 -
- ◆ 삼척시, 제23회 삼척시민의 날 기념 「수석·분재」 초청전시
- ◆ 삼척시 행복홀씨 입양사업, 마을안길 아름답게! 사랑거리는 코스모스 꽃 만발



# 삼 척 시

<b>시민중심! 행복삼척</b> 	<h1>보도자료</h1>	제공부서	해양관광센터소장	정현대
		담당	당	레일바이크담당
	2017. 10. 11.[수]	전화번호	033-570-4602	

**제목 : 삼척시, 추석연휴기간 12만 5천명 삼척해상케이블카 등  
관람 관광객 급증**  
**= 삼척해상케이블카 대박! 명품 관광지 급부상, 지역 상경기 호황 전인 =**

삼척의 새로운 해양관광 명소인 삼척해상케이블카가 9월 30일부터 10일간 추석연휴 기간에 약 15만여 명이 해상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삼척을 찾아 7번 국도 용화 나들목 자동차 전용도로가 막힐 정도로 수많은 방문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뤄 삼척시 관내 식당, 숙박업소가 엄청난 호황을 누렸다.

연휴기간 삼척해상케이블카는 현장에서 탑승권을 발매하고 발권번호 순으로 탑승을 하면서 매일 오전 10시 30분 경에 당일 탑승권이 매진되어, 탑승권을 발급 받고 탑승대기 중인 관광객과 탑승권을 구매하지 못한 관광객들이 주변에 산재한 해양레일바이크, 해신당공원, 장호비치캠핑장, 수로부인헌화공원, 대이동굴 등 12만 5천명이 이용하여 6억 8천만원의 수입을 올려 삼척이 명실상부한 사계절 체류형 명품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해양레일바이크에서는 해상케이블카 탑승전 장시간 대기하는 관광객을 위해 10월 1일부터 레일바이크를 기존 2시간 간격으로 일일 6회차 운행하던 것을 수시 운행으로 변경하여 1일 10회 차로 추가 운행하여 삼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레일바이크 탑승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10일간 1만 5천여 명을 추가로 탑승시켜 총 4만 5천여 명이 레일바이크를 체험하는 등 삼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붙임 추석연휴 삼척해상케이블카 관련 사진 3부



	<h1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h1>	제공부서	평생교육과장	최진현
		담당	교육지원담당	정희순
	2017. 10. 11. [수]	전화번호	033-570-4432	

## 제목 : 깊어가는 가을, 죽서루에서 작가와 함께 「3人3色이야기」 참가자 모집

삼척시는 오는 10월 29일(일) 오후 1시부터 “죽서루에서 작가와 함께 「3人3色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 행사는 오는 10. 28(토) ~ 10. 29(일) 양일간 개최되는 제10회 삼척 평생학습박람회와 연계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 기념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관내 초·중학생들이 국내 유명 동화작가 3인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임지형 작가의 「방과 후 초능력 클럽」을 시작으로 초등 5~6학년 대상 정명섭 작가의 「사라진 조우관」, 중학교 1~2학년 대상 윤혜숙 작가의 「밤의 화사들」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할 관내 초·중학생들은 10월 10일(화) 부터 18일(수) 까지 삼척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각 프로그램별 선착순 40명으로 총 120명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관동팔경 제1루이며 보물 제213호인 ‘죽서루’ 누각 위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평소 만나기 어려운 유명 동화작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관내 초·중학생들이 책읽기에 대한 흥미를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포스터 및 리플렛 파일 각 1부.

## 죽서루에서 작가와 함께 [3인3색이야기]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기념 경주문화제 문화행사 초청프로그램  
와 연계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기념 경주문화제 문화행사 초청프로그램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조선시대의 누각 [죽서루]는 보물 제213호이고 삼척시의 서쪽을 흐르는 오십천(五十川)이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세워져 예로부터 관동팔경의 하나로 유명했습니다. 누각은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정신수양의 장소로 활용되었던 건축물입니다.

이번 문화제에 옛 조상들의 삶을 체험하는 의미로 죽서루에서 책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로 또는 미래로 여행하는 죽서루에서 작가와 함께 [3인3색이야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임지형 작가 | 밤과 후 초능력 클럽**  
어릴 적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던 임지형 작가는 초능력 이야기로 흥미를 끌었다. 초능력 이야기의 매력은 상상 속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점이다. 초능력 이야기의 매력은 상상 속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점이다. 초능력 이야기의 매력은 상상 속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명섭 작가 | 사라진 조우관**  
정명섭 작가는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윤혜숙 작가 | 밤과 후 초능력 클럽**  
윤혜숙 작가는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행사일시**  
2017년 10월 29일 (일)  
1회) 13:00~14:00 초등학교 3,4학년 임지형작가  
2회) 14:30~15:30 초등학교 5,6학년 정명섭 작가  
3회) 16:00~17:00 중학교 1,2학년 윤혜숙 작가

**참여방법**  
10월 18(수)일까지 인터넷 접수 → 책읽기 → 행사참여  
(삼척시평생학습관홈페이지-회원등록-신청/선착순 각 40명모집)  
행사문의 : 삼척시평생교육과 (033-570-4439)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기념 경주문화제 문화행사 초청프로그램

**죽서루에서 작가와 함께 [3인3색이야기] 첫번째이야기**  
2017년 10월 29일 (일) 13:00~13:50

**임지형작가**  
어릴 적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던 임지형 작가는 초능력 이야기로 흥미를 끌었다. 초능력 이야기의 매력은 상상 속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점이다. 초능력 이야기의 매력은 상상 속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점이다.

**밤과 후 초능력 클럽**  
어릴 적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던 임지형 작가는 초능력 이야기로 흥미를 끌었다. 초능력 이야기의 매력은 상상 속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점이다.

**삼척시**  
SAMSCHOK CITY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기념 경주문화제 문화행사 초청프로그램

**죽서루에서 작가와 함께 [3인3색이야기] 두번째이야기**  
2017년 10월 29일 (일) 14:30~15:20

**정명섭작가**  
정명섭 작가는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라진 조우관**  
정명섭 작가는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삼척시**  
SAMSCHOK CITY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기념 경주문화제 문화행사 초청프로그램

**죽서루에서 작가와 함께 [3인3색이야기] 세번째이야기**  
2017년 10월 29일 (일) 16:00~16:50

**윤혜숙작가**  
윤혜숙 작가는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밤과 후 초능력 클럽**  
어릴 적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던 임지형 작가는 초능력 이야기로 흥미를 끌었다. 초능력 이야기의 매력은 상상 속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점이다.

**삼척시**  
SAMSCHOK CITY

	<h1>보도자료</h1>	제공부서	문화예술센터소장	김태수
		담 당	문화예술회관담당	이미란
	2017. 10. 11. [수]	전화번호	033-570-4461	

## 제목 : 삼척시, 악극 「꿈에 본 내고향」 초청공연 개최 - 제23회 삼척시민의 날 기념 무료 초청 공연 -

제23회 삼척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공연 제공 및 문화 향유를 통한 생활의 활력과 즐거움을 주고자, 오는 10월 13일(금) 오후 7시 30분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악극 「꿈에 본 내고향」 초청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작품은 우리 고유의 정서가 녹아있는 악극 공연단체인 한국악극보존회(대표 허현호)에서 탤런트 전원주, 심양홍, 이대로 등 21명의 단원이 출연하여 무대에 오른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에 소외된 읍·면 지역의 시민들과 소외계층을 초청하여 시민의 날 기념 무료 초청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악극 「꿈에 본 내고향」 초청공연이 시민 모두를 위한 무료 관람인 만큼 관람객이 많이 참석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붙임 「꿈에 본 내고향」 홍보포스터 1부

제23회 삼척시민의 날 기념  
삼척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악극** 순수 토종 뮤지컬


# 꿈에 본 내 고향



춤과 노래!  
눈물과 웃음!  
그리고 감동의 드라마!

2017. **10. 13.**(금) 19:30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주 최 \_  삼척시
- 주 관 \_ 한국악극보존회
- 관 람 료 \_ 무료
- 관람연령 \_ 8세이상 관람
- 공연안내 \_ 삼척문화예술회관([www.scart.kr](http://www.scart.kr))572-1331

	<b>보도자료</b>	제공부서	문화예술센터소장	김태수
		담 당	문화예술회관담당	이미란
	2017. 10. 11. [수]	전화번호	033-570-4461	

## **제목 : 삼척시, 제23회 삼척시민의 날 기념 「수석·분재」 초청전시**

제23회 삼척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특별한 전시회가 개최된다.

삼척시가 주최하고 삼척시수석연합회(대표 민광홍), 삼척분재회(대표 김원구)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삼척시민의 날을 맞아 수석·분재 분야의 지역 향토 수집가들을 초청하여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수석·분재 분야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수석 63점, 분재 100점 등 모두 163점의 작품을 삼척문화예술회관 제1,2,3전시실에 전시할 예정으로, 관람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033)572-1331 으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제23회 삼척시민의 날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수석·분재 분야의 우수한 작품을 관람하며 창의성, 예술성을 향유하고 누구나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붙임 수석·분재 초청전시회 브로마이드 1부.






삼척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 제23회 —  
삼척시민의 날 기념

# 수석·분재 초칭 전시

2017. 10.13. ~ 10.15. (3일간) 삼척문화예술회관 제 1,2,3 전시실

- 주 최 :  삼척시
- 주 관 : 삼척시수석연합회, 삼척분재회
- 관람료 : 무료
- 관람연령 : 전체관람
- 전시안내 : 삼척문화예술회관 ([www.scart.kr](http://www.scart.kr)) 033.572.1331



<b>시민중심! 행복삼척</b> 	<b>보도자료</b>	제공부서	환경보호과장	박경자
		담당	생활환경담당	김형섭
	2017. 10. 11.[수]	전화번호	033-570-3336	

## **제목 : 삼척시 행복홀씨 입양사업, 마을안길 아름답게! 살랑거리는 코스모스 꽃 만발**

삼척시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복홀씨 입양사업” 참여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하장면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위원회”(위원장 권태식)가 회원 70명과 지역 내 4개 석회석 광산업체 직원 50명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난 7월 코스모스 꽃씨를 구입하여 먼지 날리던 역둔리 마을에 조성한 꽃길이 가을바람으로 살랑이는 강물결과 함께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코스모스 꽃물결을 이루었다.

또한 마을 도로변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꽃향기 가득한 코스모스 꽃밭에서 고향의 향수를 맘껏 취해보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공원과 지역명소 등 일정구간을 주민 및 사회 단체가 입양해 자율적으로 청소하고 꽃밭 가꾸기 등 민간주도의 깨끗한 마을가꾸기 활동으로 시민과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행복의 홀씨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사업이다.

붙임 : 사진 2부.

